

검찰개혁법 공청회…“검수원복 안돼” vs “경수완독 경계”

〈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

중수청 이원화에 “법안상 협력관계 설정”·“사실상 검사가 지휘”
공소청 3단 구조 놓고도 이견…정청래 “방향과 속도 모두 중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부의 중대범죄 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립안에 대해 수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20일 당내 의견 수렴 차원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 등을 놓고 점예한 대립이 확인됐다.

민주당은 정부의 입법예고 시한(26일)을 앞두고 지난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연 데 이어 22일의 총을 다시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기조발제자 등 전문가들은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 등을 놓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중수청 인력 구조에 대해 “법안상 상하 관계가 아닌 기능적인 협력 관계로 설정해왔다”며 “(이들은) 모두 사법경찰관이지 검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수청 법상 수사사법관들을 검사들이 맡게 될 개연성이 크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전문수사관과) 똑같은 (지위에서) 수사를 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공소청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3단 구조 유지 여부가 점쟁이 됐다.

최 교수는 “(기존 검찰청처럼) 대·고등·지방공소청 3단 구조를 유지해야 하는지 이견이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고등검찰청이 담당하는 항고·재항고 등 기능을 할 기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황 교수는 “기존 검찰청에서 고검은 사실상 ‘늘고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복잡한 3단 구조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토론 비중은 크지 않았다. 이 쟁점은 항후 형사소송법 개정 때 다루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황 교수는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검찰 개혁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는데 과연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될지 의문”이라며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필성 변호사는 정부안에는 “경찰이 검찰보다 수사역량이 떨어진다는 우월적 사고가 깔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에 따른 검사의 권한 추가’가 가능하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시행령 정지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꼽았다.

반면 신인규 변호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 지금 어느 순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갔는데, 그것을 달리 쓰면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며 “극단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청회에선 온라인 참석자들의 질문도 실시간으로 받았다.

우선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국가수사본부의 기능과 중첩된다’는 질문에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간에 경쟁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 간 조정 기준·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공소청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는 문제를 놓고는 정청래 대표도 토론에 가세했다.

정부는 헌법상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된 점을 고려해 직함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법적으로 검찰총장으로 하고, 실제론 공소청장으로 부단면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토론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신인규 변호사는 “그런 절충안도 가능하다”면서도 위헌 시비를 없애기 위해선 추후 개헌이 병행되는 게 좋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공청회 맺음말에서 “나는 이 방향에 찬성한다. 다만 이어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라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안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국조특위 위원들과 관계자들이 참사 당시 파손된 방위작 시설 (LOC) 잔해를 살펴보며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메이데이’ 외쳤는데…관제탑, 5분 뒤 소방 출동 지시

항공기 참사 국조특위 무안 현장조사…종합상황실 등 지시 못받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 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현장조사에서 사고 당시 공항 관제탑이 소방대에 일제 지령이 내려졌다. 소방대는 오전 9시 5분 현장에 도착해 화재 진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시간차를 두고 유가족과 조사위원들은 “왜 메이데이 접수 시점과 실제 출동 시점이 다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공항 종합상황실장은 “소방대는 관제탑의 명령이 있어야 출동할 수 있다”며 “관제탑에서 출동 대기 요청은 있었지만, 종합상황실은 소방 출동을 발동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방대를 관할하는 무안공항 시설부장 역시 “관제탑에서 메이데이가 공유되며 비상 대기 요청은 있었다”며 “그 외 별도의 지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조특위 조사단은 무안공항 상황실과 관제실을 비롯해 조류충돌 예방 활동 현장, 사고 현장, 사고기 잔해 보관소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이승열 사조위 조사단장이 격앙된

이후 오전 9시 3분이 되어서 관제탑으로부터 종합상황실과 소방대에 일제 지령이 내려졌다. 소방대는 오전 9시 5분 현장에 도착해 화재 진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시간차를 두고 유가족과 조사위원들은 “왜 메이데이 접수 시점과 실제 출동 시점이 다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공항 종합상황실장은 “소방대는 관제탑의 명령이 있어야 출동할 수 있다”며 “관제탑에서 출동 대기 요청은 있었지만, 종합상황실은 소방 출동을 발동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방대를 관할하는 무안공항 시설부장 역시 “관제탑에서 메이데이가 공유되며 비상 대기 요청은 있었다”며 “그 외 별도의 지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조특위 조사단은 무안공항 상황실과 관제실을 비롯해 조류충돌 예방 활동 현장, 사고 현장, 사고기 잔해 보관소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이승열 사조위 조사단장이 격앙된

유족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다. 이후 국조특위와 유가족 간 간담회에서도 조사위의 미진한 조사 과정과 유류품 관리 등 사안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김도희 유가족협의회 이사는 “사조위가 지난 19일 오후 제주항공 측에 유류품 소유권을 문의하는 등 유류품 정리를 시도했다”며 “국정조사 기간인데 왜 하필 지금 증거를 정리에 나서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증거 인멸이나 사건 축소 시도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참사 발생 358일 만에 국정조사가 열려 진행 중이다. 유가족들의 삶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위태롭고 처참하다”며 “이번 국정조사는 지난 1년 동안 잘못 끼워진 단추를 바로잡고, 왜곡과 은폐를 멈추는 올바른 진상 규명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국조특위 위원장은 “현장을 둘러보니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윤준영 기자 yoon@

국힘, 靑 앞 ‘쌍특검 촉구’ 규탄대회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단식 농성 6일째인 20일 청와대 앞에서 ‘통일교 계이트·더불어민주당 공천 현금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60여명은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 집결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치권의 뿌리 깊은 검은돈을 적결하자는 특검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장

의 단식을 두고 ‘밥 먹고 싸우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야당의 처절한 호소를 조롱하는 반지성적 언어폭력”이라며 “집권당의 용줄하고 비열한 민낯”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민주당이 신천지 의혹을 ‘물타기’ 용으로 끼워 넣으려 했다며 특검 거부 명분을 반박했다.

나경원 의원도 “여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은 선거용 정략”이라고 규정하며 “진짜 필요한 공천 뇌물과 통일교 특검을 즉각 받아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민주 ‘1인1표제’ 갈등 숨 고르기

청와대-지도부 만찬…이 대통령, 여권 원팀 강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를 둘러싼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충돌이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간 만찬을 계기로 20일 일단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갔다.

다만 이번 갈등의 본질이 사실상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선거 등에서의 룰 세팅과 관련된 힘겨루기라는 점에서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

현 정안 투표가 진행되는 다음 달 초 중앙위 전까지 당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인1표제를 놓고 정 대표와 각을 세운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강 최고위원은 전날 만찬 직후 페이스북에 “오늘 만찬장의 분위기는 기볍고 유쾌했지만, 그 안에 담긴 원팀을 향한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이

다”고 썼다.

이런 분위기 변화는 이 대통령의 여권 원팀 강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시나”고 농담조로 묻자 정 대표가 “우리는 모두 친명이고 친청(정와대)”이라고 답했는데, 이를 두고 당정청 모두가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원팀을 강조한 것이라 해석이 당에서 나왔다.

여기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계속될 경우 국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죽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죽!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죽!
바로 바로 확인까지 죽!

zgm

zgm.the pay 카드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전월 실적 제한없음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기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 526-0222~3
치평지점 062) 381-8212~3
상촌지점 062) 381-6551~2
화정지점 062) 372-0421~3

유동지점 062) 512-1984~5
동립지점 062) 513-8521~3
운암지점 062) 527-3295~6
운천지점 062) 371-2772~3

유덕지점 062) 373-3235~6
동운지점 062) 528-2640~2
버들지점 062) 381-1971~2
상무동지점 062) 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 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 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 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 385-4977~8

동립아나로지점 062) 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 364-8400
유덕아나로마트 062) 373-3235
하나로마트동립점 062) 511-2901~3